

산토끼는 다들 어디로 가 버렸을까?¹⁾

강 상 준²⁾

충북대학교 명예교수·협회 충북지부장

동요 ‘산토끼’

1960년~1970년대 까지만 해도 마을 뒷산에 가면 산토끼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산을 오르다가 산기슭 길옆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면 산토끼였는데 요즈음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 버렸을까?

내가 본 마지막 산토끼는 1982년 여름 마을 뒷산이 아닌 지리산(1,915 m)의 장터목산장이었다. ‘장터목’이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람들과 전라북도 함안군 마천면 사람들이 물물교환과 물건을 사고팔던 곳(場)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차마고도(茶馬古道)에서 지금도 네팔인과 티베트인이 왕복 40일간 걸어서 도착,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처럼 말이다.

그 해 나는 구상나무 숲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백무동에서 출발, 소지봉(1,312 m)을 거쳐 경사진 등산로를 헉헉대며 하루 종일 힘든 발걸음으로 올라 도착한 곳이 장터목산장(장터목대피소)이었으며, 그 곳에 도착하니 저녁 무렵이 되었다.

산장에는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일행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능선 북쪽 비탈면의 작은 빈터에 텐트를 치려고 땅바닥을 고르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하얀색 산토끼 한 마리가 가까운 풀숲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슬픈 눈으로 우리 일행을 바라보는 것이다. 살금살금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붙잡아 보았더니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산토끼였다.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곱게 싸맨 후 돌려보낸 것이 내가 산토끼를 가슴에 안아 본 마지막 추억이다.

어린이들은 지금도 ‘산토끼’란 동요를 즐겨 부르고 있지만, 어른들도 어릴 적 불렀던 이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밤토실 주워서 올테야”. 이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 국민동요로 어릴 때 나도 자주 불렀던 동요이다.

이 ‘산토끼’란 노래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이방보통학교(현 이방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었던 이일래 선생(李一來, 1903-1979)이 작사 작곡한 동요이다. 일제의 통치시대였던 1928년 낙엽이 수북이 쌓이던 가을 어느 날. 갓난 애기 어린 큰딸 이명주 양(당시 1세)을 안고 학교 뒷산인 고장산 기슭에 올라가 잔디밭에 누워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생의 바로 옆에서 두려움도 없이 깡충깡충 뛰노는 산토끼를 보고 “우리 민족도 저 산토끼처럼 자유롭게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가락을 흥얼거리다 집을

1)Where have all the Korean hares (*Lepus coreanus*) gone?

2)KANG, Sang-Joon, Prof. Emeritu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of Chungbuk Chapt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E-mail: kangsj@chungbuk.ac.kr, kangsj1940@gmail.com

로 돌아와 오선지에 곡을 만들어 짓고 가사를 붙여서 동요 ‘산토끼’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 동요는 작사 작곡 후 10년이 지난 1938년이 되어서야 미국 선교사 밀의두(密義斗, Edward H. Miller, 1873-1966: 그는 우리나라에 화학(化學)이란 분야를 처음 소개한 사람으로 어머니, 아내와 함께 서울 양화진 선교사묘원에 안장되어 있다)가 발행하고 서울(京城)의 조선기독교서회(朝鮮基督教書會)가 한글과 영역으로 펴낸 ‘조선동요작곡집(朝鮮童謠作曲集)’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이일래 1938), 여기에 실린 21곡 가운데 4분의 2박자 다장조의 율동적인 곡인 이 ‘산토끼’ 노래만이 오늘날까지 애창되고 있다고 한다. 삽화와 함께 영문가사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발간된 작곡집 중에서 가장 화려했다고 전한다(그림 1).

발표 후 영역(英譯)된 가사가 몇 개 나왔다

고 하지만 ‘조선동요작곡집’에 실린 ‘산토끼’의 영문제목은 ‘Mountain Hare’이고, 유안예(Anne New)가 영역했으며 유영완(Esmond New)이 삽화를 그렸다. 초판본의 영문가사는 다음과 같다.

Where are you going to/Hare of the mountain/
With a hop-hop hoppity-hop/Lop-lop loppity-
lop/High over the mountain pass/Under the
highest peak/Lying hidden in the grass/Sweet
round chestnuts seek.

산토끼를 대상으로 한 동요는 ‘산토끼’ 외에도 작사 강소천(1915~1963), 작곡 권길상(1927~2015)의 ‘산토끼야’라는 것도 있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흰 눈이 내리며는 무얼 먹고 사느냐/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엄마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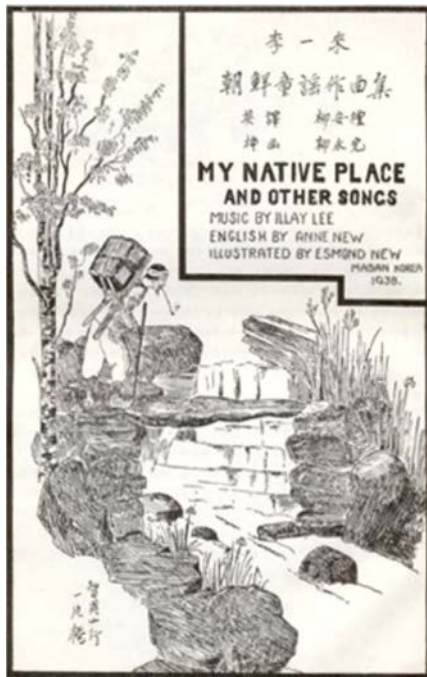


그림 1.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 표지와 조선기독교서회 발행(간지)
李日來 朝鮮童謠作曲集 英譯 柳安禮 插畫 柳永完
My Native Place and Other Songs
Music by Illyay LEE, English by Anne NEW
Illustrated by Esmond NEW, Masan, Korea 1938

빠가 여름동안 모아 논/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동요가 그것이다.

우리 문화에 나타난 산토끼

우리의 문화와 산토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토끼’는 피가 많고 영민한 동물로 인식되었는데, ‘토끼전’ 또는 ‘별주부전(鼈主簿傳)’ 혹은 ‘수궁가(水宮歌)’가 그러하고, 달나라 분화구에서 방아를 찧는 ‘옥토끼’도 그러하다. 그리고 12지(十二支) 중 네 번째로 나오는 동물이 바로 토끼(卯)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토끼와 관련된 지명들도 많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해를 맞아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 지명 154만개 중에 토끼 관련 지명은 158 곳이라 하고, 토끼가 들어간 지명 81곳, 한자인 토(兔)자가 들어간 곳 39개, 토끼 묘(卯)자가 들어간 곳 6개 그리고 토끼를 의미하는 글자는 없으나 지명의 유래에 토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지명이 32개라고 했다. 농경생활을 하던 조상들이 풍요로움과 영민함을 기원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풀이된다.

우리 속담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놓친다”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회자되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 먹는다”는 토사구팽(兔死狗烹)이란 말이 있다. 즉 쓸모가 있을 때에는 긴요하게 쓰이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유방(劉邦)과 한신(韓信)과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속담도 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해결한다는 의미이지만 무모한 행동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다. 반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없다”는 경구도 있다.

날씨가 달아나는 토끼모양을 일컬어 탈토끼세(脫兔之勢)라 하는데 이는 매우 빠르고 민첩하게 도망가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교토삼굴(狡兔三窟)이란 피가 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구멍을 파서 도망칠 비상구(?)를 미리 파 놓아 위험에 처하면 탈출한다는 뜻인 것이다.

이솝(Aesop)의 ‘토끼와 거북이(Hare and Tortoise)’라는 우화도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우화에서 토끼는 요령만 피우는 약삭빠른 동물로, 거북이는 우직하고 성실한 동물로 그려져,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승리한다는 교훈을 준 우화(寓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집토끼는 굴토끼 또는 유럽토끼(*Oryctolagus cuniculus*)가 가축화 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일본으로 부터 수입되어 사육되고 있는 것이지만, 수 백 년에 걸친 품종개량의 결과 애완용 토끼까지 합치면 전 세계에 무려 80여종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우리들이 토끼에 대한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산토끼는 한국의 고유종

산토끼(*Lepus coreanus* Thomas 1892, 영명 Korean Hare)는 토끼목(目) 토끼과(科) 토끼속(屬)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멧토끼 또는 야토(野兔)라 부르는 한국의 고유종(固有種, Endemic Species)으로 1892년 영국국립포유류박물관(National History Museum of Mammals)에 근무하던 포유류학자인 토마스(Oldfield Thomas)가 처음 기록했다(Thomas 1892, 그림 2).

우리나라의 산토끼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관심 필요종(LC, Least Concern)의 목록에 올라있는 그런 종이다(Flux and Angermann 1990, Wilson and Reeder 2005). 김상욱과 김우기(1974)는 우리나라의 산토끼는 일본 멧토끼(*Lepus brachyurus*)의 아종(亞種 Subspecies)이라고 한 바 있으며, Cobert(1978)는 중국 멧토끼(*L. sinensis*)의 아종(亞種)이라고 주장을 했었으나, mtDNA분석(미토콘드리아DNA)으로 ‘산토끼’는 한국의 고유한 종임이 다시 확인된 순수한 우리나라의 토종 소형 포유동물인 것이다(고흥선 등 2001, 고흥선 및 장경희 2010).

Lepus coreanus Thomas, 1892. Ann. Mag. Nat. Hist., ser.6,9:146

COMMON NAME: Korean Hare.

TYPE LOCALITY: "Soul"(Seoul), Korea.

DISTRIBUTION: Korea: S Kirin, S Liaoning, E Heilungjiang(China).

STATUS: IUCN-Lower Risk(Ic).

COMMENTS: Subgenus *Eulagos*(Averianov,1998). Formerly included in *sinensis*(Corbet, 1978) or in *brachyurus*(Kim and Kim, 1974); here considered distinct, following Flux and Angermann(1990) and Jones and Johnson(1965).

그림 2. 우리나라의 산토끼에 대한 기록(Wilson and Reeder 2005)



그림 3. 우리나라 고유종인 산토끼(좌), 우는토끼(중) 및 만주멧토끼(우)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토끼목에는 북한의 1,000 m~2,500 m의 높은 산에 서식하는 우는토끼과 우는토끼속의 ‘우는토끼(*Ochotona hyperborea*)’, 토끼과 토끼속에 속하는 북한의 고산지대 바위 숲에 사는 ‘만주멧토끼(*Lepus mandshricus*)’, 그리고 한반도 전역의 낮은 야산에서 부터 높은 산에 까지 서식하는 ‘멧토끼(*L. coreanus*)’가 있는데(그림 3), 이 멧토끼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 주위의 야산이나 구릉지의 풀숲에 살고 있는 산토끼인 것이다(원병오 1961).

산토끼의 특성

산토끼는 짝짓기 계절 외에는 단독생활을 하는데 주로 초저녁이나 밤에 활동하며 서로간의 소통은 양발을 북처럼 통통 치면서(Drumming their feet) 이루어진다. 위험이 감지했을 때 뛰는 속도는 무려 72~80 km나 되고 한 마리 산토끼의 행동권(行動圈, Home range)은 서로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4~20 ha이나 300 ha를 넘

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산토끼의 임신기간은 약 50일 정도이고 태어나자마자 곧 활동(Precocial)을 할 수 있다. 마치 병아리나 오리가 부화하자마자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태어 난지 3일이 지나면 새끼들은 스스로 숨을 곳을 찾아 엉클어진 풀숲이나 움푹하게 파인 땅 구덩이로 이동을 하여 숨어 있다가 24시간마다 한번 씩 해가 진 후 어미가 나타나게 되면 새끼들은 다시 모여서 어미의 젖을 먹는다. 한 배에 최대 9~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한다. 산토끼는 임신한 상태에서 새끼가 태어나지 전에 또 다른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이기복임신(異期復妊娠, 과수정 過受精 또는 과수태 過受胎, Superfet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동물에서는 흔치 않는 현상이다.

산토끼의 성체는 몸무게 2.1~2.6 kg, 몸길이 45~54 cm, 꼬리길이 2~5 cm, 귀 7.6~8.3 cm로 체색(体色)은 여름에는 갈색이었다가 겨울이 되면 흰색으로 털갈이를 하여 추운 겨울을 지내지만 가끔은 털갈이를 하지 않은 토끼도 있

다. 산토끼는 식물의 어린 싹이나 나뭇가지, 나무껍질, 단자엽의 벼과식물(Grass)과 사초과 식물(Sedge), 쌍자엽의 초본 꽃식물(Forb)을 먹는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을 보면 우거진 숲에 사는 동물이 있고 관목과 같은 덩불숲에 사는 동물이 있으며, 초원과 같은 풀밭에 사는 동물이 있는데 그들의 체격조건에 따라 서식지가 다른 것이다. 이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법칙인 것이다.

전 세계에 토끼속(*Lepus*)에 속하는 토끼는 유라시아 북부에 분포하는 눈토끼(*Lepus timidus*), 캐나다 및 알라스카에 서식하는 아메리카산토끼(*L. americanus*), 캐나다의 일부지역에 서식한다는 흰꼬리잭토끼(*L. townsendi*), 미국 오레곤 주에서 멕시코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멧토끼(*L. californicus*), 캐나다령의 배핀 섬(Baffin Island)에 분포하는 북극토끼(*L. arcticus*),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분포하는 덩불산토끼(*L. europeus*) 그리고 인도와 스링라카에 서식한다는 인도산토끼(*L. nigricollis*), 중국멧토끼, 일본멧토끼와 우리나라의 만주멧토끼 및 산토끼를 포함하여 11종이 알려져 있다.

초겨울이 되어 낙엽이 따 떨어지고 추위가 오기 시작하면 산토끼에게는 시련의 계절이 시작된다. 산토끼는 뛰고 달리는 재주는 뛰어나지만 다람쥐와 달리 겨울에 먹을 비상식량을 저장하는 본능이 전연 없다. 저장된 먹이가 없으니 겨울철에도 밖으로 나와 나무껍질이나 나무뿌리를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나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철 보리밭이나 과일나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단백질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고기가 필요한 농촌에서는 울무를 놓거나 덧과 같은 포획기구를 놓아 식용으로 잡아먹었으며, 아니면 목도리와 같은 보온용 털을 얻기 위해 또는 겨울철 방한용 모피재료(장갑 등)로 이용하거나 또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사냥도 했다.

한 겨울에는 먹을 것을 찾아 산토끼는 흰 눈

이 덮인 산을 헤매어야 하는 것이다. 농촌 뒷산에 가보면 산토끼가 늘 다니는 길이 있다. 이런 산토끼의 습성을 이용하여 가는 철사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산토끼가 다니는 길에 울무를 설치해 두면 영락없이 한 두 마리 씩 산토끼가 잡힌다. 또한 산토끼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 여우, 족제비, 맹금류와 같은 포식자들의 쉬운 사냥감이 되어 잡아먹히는 일도 허다했다.

영민하지만 겁이 많은 이 녀석은 다른 동물처럼 땅굴을 팔 줄도 몰라 바위 틈, 나무구멍, 풀숲을 집으로 삼아 독립생활을 하며 또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 해 한번 서식지를 결정하면 계속 그 곳에 머물고, 순진하게도 자기가 다니던 길만을 따라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울무에 쉽게 잡히거나 사냥을 할 수 있었다.

산토끼는 다들 이디로 갔을까?

그런데 요즈음엔 어린이 동요 대상이었던 산토끼를 보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토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사냥이나 포획을 한 때문일까? 환경오염이나 개발 때문일까? 아니면 야생화한 고양이들 때문일까? 이런 원인들도 있겠으나 마을 뒷산이나 야산에 초원(풀밭)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탄을 사용하기 이전에 농촌에서는 주로 뒷산의 나무들을 가지치기 하거나 베어다가, 심지어는 낙엽을 굶어모아다 연료나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그래서 숲은 적당히 또는 심하게 교란된 결과 관목들이 영클어진 덩불조차 매우 단순화되었으며 그런 곳에는 초본식물이 넓게 분포하여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장기간 계속되는 교란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침입, 성장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경관이 과거 우리들 농촌의 모습이었고 그런 풀밭에는 산토끼가 먹고 휴식하고 새끼를 낳는 최적의 서식지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그림 4).

산토끼는 다른 포유류와 달리 몸집이 작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이



그림 4. 산토끼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의 풀밭과 숲

나 즐기, 큰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다. 자기의 앞은키 보다 작은 식물의 잎이나 뿌리만을 먹을 수밖에 없다. 높이가 적당한 크기의 풀밭, 즉 장초형 초원(長草形 草原)과 단초형 초원, 短草形 草原)은 산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인 셈이다. 이런 풀밭이 사라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된다.

전국 어디를 가나 동내 뒷산은 개발 또는 농경지로 변화되어 산토끼의 서식조건이 훼손되어 버렸으며, 그나마 빈약한 관목 상태로 남아 있던 야산도 울창한 나무숲으로 변해 버린 지 오래이다. 1970년대부터 행해진 자연보호운동의 결과, 거의 민둥산(禿山)이었던 산까지 이제는 숲이 들어서 울창해졌고, 경제적인 풍요는 국민들로 하여금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특히 난방연료의 개선은 나무나 낙엽이라는 원초적인 땀감에서 연탄이란 석탄자원으로, 지금은 ‘가스’라는 청정 연료로 이어짐에 따라 나무를 땀감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땀감용 화목채취는 커녕 지금은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임상(林床, Forest floor)의 나무들을 쳐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더 이상 교란을 받지 않은 뒷동산과 구릉지의 자연은 서서히 울창한 숲으로 천이(遷移)가 진행되어 하층식생의 형성을 제한해 버린 결과, 산토끼가 즐겨 먹는 어린 새싹으로 구성되는 임상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빈약하

게 되고 그 결과 산토끼의 먹이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생태학적으로 숲과 초지의 경계를 임연(林緣, Forest edge)이라 하는데 이런 지역에는 주변효과(周邊效果, Edge effect)라 하여 다양한 식물, 특히 초본식물들이 서식하는데 이러한 지역은 산토끼의 최적 서식지가 되는 것이다.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산토끼의 번식력이 낮아지게 되고 세대를 지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산토끼는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서식지의 축소 또는 소실로 먹이의 부족 그리고 번식력의 저하로 인한 개체수의 감소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들 뒷산에서는 볼 수가 없고 높은 산의 초원지대에서나 가끔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람쥐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다람쥐의 먹이인 참나무류의 도토리 를 인간의 모두 주어오기 때문에 역시 먹이 부족현상 탓으로 보고 있다. 다람쥐의 개체수 감소 역시 동일한 이유로 먹이 부족이 큰 원인인 것이다. 가용자원인 먹이의 양과 개체수의 관계는 개체군 변동(Population fluctuation)이라 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생태학적인 사실이다. 산토끼가 살던 그 자리, 다람쥐가 사는 그 자리가 이제는 멧돼지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산토끼의 감소현상은 식생 천이와 소형동물과의 관계를 알아야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연구하

는 식생과 소형 포유동물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高槻成紀 2014). 어느 식물분류학자의 말에 따르면 초원의 양지에만 서식하는 희귀 또는 멸종위기의 식물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부터 소나 말의 방목이 통제된 이후 제주조릿대의 번성으로 초지에서만 자라던 희귀식물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숲의 보전도 좋지만 산토끼와 같은 소형동물, 초지에서만 자라는 소형 희귀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이일래, 1938. 조선동요작곡집. 조선기독교서회. 경성(서울). pp.34
- 高槻成紀, 2014. 唱歌「ふるさと」の生態學~ウサキはなぜいなくなったのか?. ヤマケイ 新書. 山と溪谷社. 東京. pp.216.
- Flux, J. E. C. and Angermann, R., 1990. The Hares and Jackrabbits. In. Rabbits, Hares and Pikas, Status Survey and Conservation Action Plan. pp.61-94.
- Cobert, G. B., 1978. The Mammals of the Palearctic Region: A Taxonomic Review. Brit. Mus. (Nat. Hist.). Cornel Univ. Press. pp.314.
- Kim S. W. and Kim, W. K., 1974. Avi-mammalian Fauna of Korea. Wildlife Population Census in Korea. No.5. Office of Forestry. Forest Research Inst. pp.118.
- Koh, H. S., Chun, T. Y., Yoo, H. S., Zhang, Y. P., Wang, J., Zhang, M. and Wu, C.-H., 2001. Mitichondrial cytochrome *b* gene sequence diversity in the Korean Hare, *Lepus coreanus* Thomas(Mammalia, Lagomorpha), *Biochemical Genetics*. 39(11-12): 417-429.
- Koh, H. S. and Jang, K. H., 2010. Genetic Distinctness of the Korean Hare, *Lepus coreanus* (Mammalia, Lagomorpha), Revealed by Nuclear Thyroglobulin Gene and mtDNA Control Region Sequences. *Biochemical Genetics*. 49(7-8): 706-710.
- Thomas, O., 1892. *Lepus coreanus*(Korean hare). *Ann. Mag. Nat. Hist. Ser.* 6,9: 146.
- Wilson, D. E. and Reeder, D. M., 2005. Mammals Species of the World. 3rd E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pp.2142.
- Won, P. O., 1961. Studies on the avi-mammalian fauna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Forestry protection. Avi-mammalian fauna of Korea. Inst. Agr. Minn. Agri. and Forestry. Suwon, Korea. pp.31-139.